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새 신장과 삶을 얻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방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이후 더 나빠져서 혈액 투석을 받아 왔고, 결국 신장이식수술이 필요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후원이나 지원 없는 수술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는데,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의료비 지원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수술 후 재활을 받으며 '정말 나에게 지원해주시는 곳이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아산재단에서 지원을 결정해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고 지원해주신 만큼 관리를 잘해서 건강해지는 게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좋아하십니다.

앞으로 재활을 통해서 남들처럼 운동도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회에 보탬이 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역경을 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드림

